

“전혀 지루하지 않은 ‘윤회’”

한암예술단 ‘바다로 가자’ 뮤지컬 공연, 25일 천안 한암아트홀



한암예술단의 아심적인 뮤지컬 '바다로 가자' 리허설 장면.

“바다는 죽음을 상징하지만 바다에 의해 인간으로 진화했듯이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바다 저 편에는 영원한 삶을 누리는 신비한 세계가 있지 않을까요?” 천안 한암사 주지 원철 스님이 또 한 편의 뮤지컬 작품을 내놓았다. 제목은 ‘바다’

“**‘화엄경’에 등장하는 인드라망이 구슬 하나하나가 모여 이루어 졌듯이 바다의 구성원들인 물방울들의 소별과 재탄생 모습을 통해 인간 세상의 윤회사상을 말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줄거리는 대략 이렇다.

15명의 배우들 물방울로 등장 중생들 삶 표현 ‘돈키호테’ 임태성 감독 음악 관객들 사로잡아

로 가자’. 2월 25일 오후 3시 천안 한암아트홀에서 공연된다. 제목을 알면 들으면 ‘해변으로 가요’라는 대중가요가 생각나 가벼운 여름 소재의 작품이 아닐까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내용을 듣고 보면 경쾌한 느낌의 제목과는 달리 불교의 ‘윤회사상’이 짙게 깔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이 작품에는 15명의 배우들이 역할을 맡은 물방울들이 등장한다. 넓은 바다는 이 물방울들 하나하나가 모여 이루어 졌는데, 여기서 이 물방울들은 중생들의 삶을 의미한다. 대본을 쓴 원철 스님은



너무 오래 살아 지쳐버린 할머니는 외로움에 절규한다. 그래서 할머니는 바다로 가고 싶어한다. 우리 인간은 바다에서 왔고 결국은 바다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고

물감으로 만들어낸 성지영 작가의 ‘천진불(天真佛)’도 소재나 표현에 있어 불교미술이 얼마나 그 지평을 넓혀가고 있는지 보여준다.

역량있는 작가와 불교문화재 전문가들로 구성된 한국불교미술협회(회장 김창균)는 2월 21일부터 27일까지 경인미술관 제2관에서 ‘제17회 한국불교미술협회 기획전-불교미술의 새로운 모색’을 연다.

이번 전시회에서 가장 눈에 띄는 작품은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속 김선태 씨의 불화다. 부조위에 유약을 바르고 그위에 채색하는 기법을 활용해 현대적인 감각을 최대한 살린 작품을 선보였다. 고승희 작가의 ‘마음을 가져오라. 그대를 편안하게 하리라’ 역시 세련된 색감과 화려함이 돋보인다. 고 작가의 작품속에 등장하는 지장보살은 패션모델조차도 혀를 두들 정도로 세련되고 멋스럽게 표현돼 관람객들의 눈을 고정시킬 것 같다. 특히 그의 작품은 전통 불화의 모습을 뛰어넘어 현대적 감각에 맞게 재창조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이와함께 종이죽과 아크릴

김주일 기자

우리나라 불교음악 이야기 ②

‘은동경’에 숫자로된 음정 기록 남아

1910년대 - 1930년

음악이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는 방법은 사람과 사람의 목소리로 전해 오는 구전방법이 있고, 국악에서 사용하는 정간보가 있다. 또한 1895년 우리나라에 전래된 서양기법의 오선보가 있다.

불교음악역사의 기록은 1925년에 발행한 ‘은동경’과 1926년 10월 1일부터 발행된 잡지 ‘불교’ (통권28호)에 수록된 내용, 1921년부터 시작된 대각교 운동에 기록된 ‘대각교의식’에 기록된 내용 등이 전부다.

1910년 각황사에서 첫 불교음악 시작 기록은 없어 기원이라 단언 어려워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불교음악이 시작된 곳은 1910년 10월 27일 전국의 각 사암승려가 의무금을 각출해 서울 북부 수진방 전동에 세운 조선불교 중앙포교당 각황사다. 이곳에서는 1912년부터 일요일에 음악강습회를 실시했으며, 8월 28일마다 수료증 수여식까지 거행했다. 그러나 강습회 내용은 서양기법의 음악인지 확인할 수 없고 문헌상으로도 기록되어진 것이 없기 때문에 불교음악의 기원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다만 <한국불교총람>에 기록되어진 것이 전부다. 문헌으로 기록된 전불가는 대정14년(1925)에 권상로 스님께서 발행인이고 조선불교

중앙포교원에서 발행한 ‘은동경’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은동경’에 기록된 찬불가의 모습은 박자와 조성이 기록되어 있으며 계명도 숫자로 쓰여져 있다. 곡목에는 ‘찬불가, 회당수호은’의 은동경을 주제로 한 찬불가 10여곡과 ‘신불가’ 등 12곡정도가 수록돼 있다. 이 때까지 오선보로 기록된 찬불가는 없었던 것이다. 예나하면 조학유 스님께서 서언에 남겨 놓은 ‘본래 불교에 여러 기종의 차이는 있었으나 다만 가사뿐임으로’라는 서두의 글로 알 수 있다. 결국 1926년 이후 불교음악에 사용되었다. 다시 정리해 보면 1910년부터 각황사에서 일본 유학 승을 중심으로 계몽연극과 함께 민중교화방편으로 찬불가가 활용 되었고, 용성 스님께서 대각교 운동을 시작한 1921년에는 창가로 찬불가가 시작됐다. 1925년에 권상로 스님이 발행한 ‘은동경’에는 숫자로 음정이 기록되어 있고, 1926년 조학유 스님이 발행한 ‘잡지’에서는 ‘주곡이 불일하고 통일 문헌상으로도 기록되어진 것이 없기 때문에 불교음악의 기원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다만 <한국불교총람>에 기록되어진 것이 전부다. 문헌으로 기록된 전불가는 대정14년(1925)에 권상로 스님께서 발행인이고 조선불교

안병길(삼보불교음악협회 사무총장)

신·구 작가들 다양한 실험작 돋보여

한국불교미술협회 기획展, 2월 21일~27일 경인미술관

한국불교미술계의 나아갈 방향은 어떤 모습일까? 한국불교미술의 현재와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의미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보이차 전문점

진보이·진보이형 철관음 오물차
대홍포·화차·인삼이형 40여종의 차

瑞榮香耳

조계사 건너편 TEL 02)722-0855
H.P 017-411-0882

한국의 전통 불화(佛畵)는 2월 21일부터 27일까지 경인미술관 제2관에서 ‘제17회 한국불교미술협회 기획전-불교미술의 새로운 모색’을 연다.

이번 전시회에서 가장 눈에 띄는 작품은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속 김선태 씨의 불화다. 부조위에 유약을 바르고 그위에 채색하는 기법을 활용해 현대적인 감각을 최대한 살린 작품을 선보였다. 고승희 작가의 ‘마음을 가져오라. 그대를 편안하게 하리라’ 역시 세련된 색감과 화려함이 돋보인다. 고 작가의 작품속에 등장하는 지장보살은 패션모델조차도 혀를 두들 정도로 세련되고 멋스럽게 표현돼 관람객들의 눈을 고정시킬 것 같다. 특히 그의 작품은 전통 불화의 모습을 뛰어넘어 현대적 감각에 맞게 재창조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이와함께 종이죽과 아크릴

김주일 기자

詩書로 떠나는 임지암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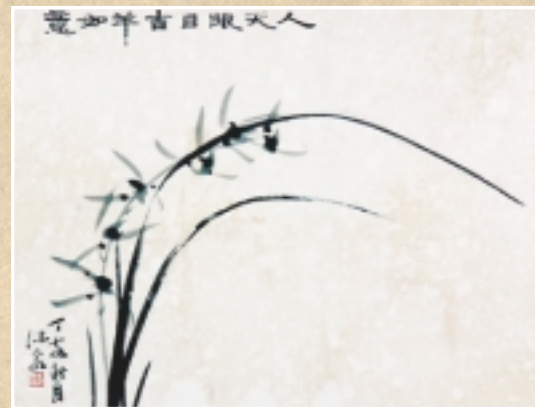
두루산 일지암

장인성 시인

초당(草堂)에는 지금도
초의선사 그림자가 서성이는지
알까한 풀냄새가 불을 후린다

소치(小池)도 여기서는
시퍼런 풀냄새를 버루에 갈아
푸른 못 끝에 찍어 난을 찼으리

풀냄새 몇 방울 찻사발에 남겼다가
나그네 찾아오면 잔을 들어 권했으리.



일지암(一枝庵)-시(詩)·서(書)·화(畵)·다(茶)에 대한 예도(藝道)가 신선의 경지라 하여 ‘초의사공(草衣四風)’이란 말이 생겨났을 정도로 고고했던 초의선사가 일생을 보낸 초당 암자로 남동화의 태두인 소치가 이곳에서 선사의 사사를 받았다. 그림 이상배 화백

영남불교대학 부설 유치원·어린이집 원아모집

< 최대불교대학 · 기도성취 및 복지대도량 > - 백문이불여일견입니다!!

참좋은유치원 원아모집

- ◆모집대상 : 6세, 7세(2001년 3월 1일 ~ 2003년 2월 28일 출생)
- ◆입학생을 위한 특전 - 입학금면제, 저렴한 교육비, 체육복 및 가방 무상 제공
- ◆제출서류 : 입학원서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사진(3×4) 3매
- ◆접수처 : 참좋은유치원 (영남불교대학 옥물보전 2층) - 선착순 ☎ 문의 053)476-6767

참좋은어린이집 원아모집

- ◆모집대상 : 3세 ~ 5세(2003년 3월 1일 ~ 2006년 2월 28일 출생)
- ◆제출서류 : 입학원서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사진(3×4) 3매
- ◆접수처 : 참좋은어린이집 (영남불교대학 옥물보전 1층) - 선착순 ☎ 문의 053)476-6767

※ 접수기간 : 2007년 2월 15일 ~ 선착순 마감
♣ 영남불교대학의 명세를 갖고 지도합니다 ♣
생태공원과 전통문화체험장 등을 갖추고 있으며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차별화된 다양한 프로그램 실시!!

● 영남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 ▷ 4월 첫째주 개강, 주·야간반, 주1회
▷ 학력, 연령 상관없이 성인 누구든 입학 가능합니다. ☎ 문의 : 053)474-8228

기초반 10기, 경전반 8기, 야간반 3기 2007년 3월 8일 개강

안양불교대학 신입생모집



- 기초반 : 매주 화, 목요일 오후 2시 (기초교리, 불교학개론)
- 경전반 :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금강경-권기종 교수님)
- 직장인을 위한 야간반 :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기초교리, 금강경(권기종 교수님)

안양불교대학 특강교수

- ◆세민스님 - 전 해인사 주지
- ◆도영스님 - 전 조계종 포교원장
- ◆법산스님 - 동국대학교 교수
- ◆현각스님 - 동국대학교 교수
- ◆태원스님 - 중앙승가대학 교수
- ◆정산스님 - 서울 경국사 주지
- ◆현종스님 - 조계종 불학연구소장
- ◆원철스님 - 조계종 총무원장 기획국장
- ◆현호스님 - 안양불교대학장
- ◆권기종 교수 - 전 동국대 사회교육원장
- ◆엄앵란 - 불자 방송인
- ◆남일우, 김용림 - 인기 불자탤런트
- ◆최영중 - 불자가수 '108가요 진행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674-124번지 (국민은행 안양1분기 지점) 문의전화 ☎ 031)444-5935~6